

(앞부분 줄거리) 일본 유학 중인 '나'는 학비가 떨어져 고생하던 중 아내의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도쿄에서 부산으로 오는 관부연락선에 올라 일본인들의 언행과 조국의 참상(慘狀)을 보며 지식인의 허무감을 느낀다.

내 나라로 돌아오기는 분명히 각오하고 떠나오긴 ①하였만, 막상 떠나올 때가 되고 보니 내 마음이 몹시 ②찌르르하고 아프게 저리는 것을 ③깨닫지 못하였다. 그럴 만한 각오를 가져 본 적도 없거니와, 내 신체가 이 모양으로 처참하게 된 것이, 오직 조선놈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에서뿐이라는 것을 알자. 나는 더욱 암담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이른 봄 저녁에 배를 탄 이래, 으스스한 바람은 스며들고, 희미한 등불만이 멀리 깜빡이며 물결만 흰빛을 이룰 뿐이었다. 뱃머리가 나는 것은 아니었으나, 뱃머미 이상으로 괴로웠던 것은, 차마 설명할 수 없는, 혹은 설명하기를 싫어하는 나의 심경이었다. 나는 나 자신이 한없이 밋고 불쌍히 생각되었다.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간다니. 아아, 내 조국! 내 가족! 그들에게 나는 무슨 위로를 가져다줄 것이며, 그들에게는 또 무엇을 바랄까?

가자가 대판(大阪:오사카)을 떠나 신호가 요란한 사이, 나는 문득 아내의 초췌한 얼굴을 생각했다. 그 병든 아내를 위하여 내가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였던가? 생각해 보니,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던 듯싶다. 나에게서는 이렇다 할 연애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의무로 한 결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내의 병든 몸이 나를 이다지도 불안하게 할까? 그것은 분명히 애정의 불안은 아니었다. 다만 내가 조선에서 발붙일 곳이라고는 오직 내 처가밖에 없는 줄을 알기 때문이었다. 내 처가는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부호였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떠나서도 오직 그들에게 의지할 뿐이었다.

④이 ⑤높의 팔자도 기구하다.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나의 비극은 곧 우리 조선의 비극이 아니라? 그 비극은 곧 개인의 비극이며, 민족의 비극이었다. 나는 그저 우울하였다. 내가 돌아가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향하는 이 배 안에서 나는 마치 망명객과 같은 기분이었다. 내 몸은 떠나왔으되, 내 마음은 오히려 갈 길을 잃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중략)

나는 배 안의 일본인 승객들을 ⑥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은 나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었다. 저들도 나처럼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저들은 저들의 나라가 있고, 저들의 갈 곳이 있어 저토록 즐거운 것일까? 나는 내 고향을 생각했다. 고향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서는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 나는 마치 영혼 없는 육체처럼 이 배에 실려 가는 것 같았다. 저들을 보니 더욱 내 신체가 처량해진다. 나는 아내의 위독하다는 전보를 다시 꺼내어 보았다. 다시 읽어 보아도 그저 '위독'이라는 두 글자뿐이었다. 얼마나 위독한 것일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까? ⑦나는 그러한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⑧섬뜩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아무런 애정도 없었다 할지라도, 결혼한 지 칠 년 동안 같이 살았고, 자식도 낳아준 아내인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

나는 나의 냉정함에 스스로 전율하였다. 나는 담배꽂이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파도만이 희게 부서지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을 삼키려는 듯한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의 절규. 그것은 나에게 곧 조선의 비극이며, 나의 개인적인 비극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기 ⑨ 뿐이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 이 고난의 연속에서 나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망연히 앉아 이 비극적인 여행을 마칠 뿐이었다. 이 여행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다른 비극? 아니면 차라리 모든 것의 종말? 나는 그저 한숨을 쉬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저 이 비극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 배는 나를 실어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어둠 속에서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업상섭, 만세전-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인 시선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한다.
- ② 과거 회상을 현재 서술과 병치하여 인물의 내적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 ③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여 복잡한 심리 상태를 심층적으로 드러낸다.
- ④ 대화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인물 간의 관계 변화를 역동적으로 제시한다.
- ⑤ 풍자적 어조를 사용하여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해학성을 부여한다.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나'가 처가에 의지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B]는 '나'의 그러한 선택에 대한 후회와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 ② [A]는 '나'의 아내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처가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드러내고, [B]는 그러한 감정에서 비롯된 '나'의 무력감과 체념을 심화한다.
- ③ [A]는 '나'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며 아내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B]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나'의 의지를 나타낸다.
- ④ [A]는 일본에서의 학업에 대한 '나'의 열정을 보여주며, [B]는 귀국에 대한 '나'의 설렘과 기대감을 표현한다.
- ⑤ [A]는 '나'가 조선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시하고, [B]는 그 모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의지를 강조한다.

3. ④~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④는 귀국 결정에 대한 '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반면, ⑤는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나'의 굳건한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 ② ⑥는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지만 ⑥는 외부 환경에 대한 '나'의 불만을 표출한다.
- ③ ④는 귀국 결정 이면에 깔린 '나'의 내적 갈등을 암시하고, ⑤는 불우한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나'의 자조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 ④ ④는 일본인 승객들의 밝은 모습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시선을 나타내며, ⑥은 아내에 대한 '나'의 애뜻한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 ⑤ ④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반면, ⑥은 '나'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염상섭의 「만세전」은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 '이인화'의 내면을 통해 당대 식민지 현실의 참혹함과 개인이 겪는 허무감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인화'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냉소와 체념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무심함을 드러내곤 한다. 이러한 그의 내면은 개인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 ① ㉓ 하얗다는, 막상 떠나올 때가 되고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찢어지고 아프게 저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나'가 귀국을 결심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무기력감을 나타낸다.
- ② ㉔ 이 놈의 팔자도 기구하다는 처가에 의존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나'의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민족의 비극과 연결되는 인식의 한 단면이다.
- ③ [A]에서 '나'가 아내에게 사랑의 감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처가에 의지하려는 심리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 관계에서의 '나'의 무심함과 현실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모습을 드러낸다.
- ④ ㉕ 물끄러미 바라보았다에 이어 '저들의 밝은 표정은 나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었다'고 서술된 부분은, 일본인 승객들의 모습에서 '나'가 자신의 허무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과정을 보여준다.
- ⑤ ㉖ 나는 그러한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섬뜩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은 아내의 죽음조차 개인의 안락과 연결시키는 '나'의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지만, 결국 '나'가 이러한 자기비판을 통해 무기력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게 됨을 암시한다.